

# 민족의 아버지, 통일시대

##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령된 첫날부터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남녘동포들이 당하는 불행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집에 있는 자식보다 밖에 나간 자식을 더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 그대로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남녘백발농민들에게 돌려주신 어머니수령님의 보살핌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나라가 해방되어 이듬해 첫봄이 왔을 때 부녀의 농민들은 땅의 주인이 된 기쁨으로 설레이고있었으나 남녘동포들은 소작살이로 굶은 등을 펴지 못하고 신음하고있었다. 남녘백발농민들은 물이 없어 애라게 한숨만 짓고있었다.

그들의 어려운 정상을 헤아리신 수령님께서서는 38°선 이북에 있는 구암저수지와 레의저수지의 물을 남쪽으로 보내도록 동포애적조치를 취하시였다. 남녘백발의 농민들은 북의 관개수가 자기들의 땅을 적실 때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했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 구암저수지와 레의저수지는 레년에 불수 없었던 큰비로 하여 물이 무너지고 수문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듬해에 물이 없어 조장도를 심을 남녘백발농민들을 녀려하신 수령님께서서는 막대한 자금, 자재, 로력을 들여 저수지들을 복구하고 관개수를 보내도록 하시어 남녘농민들의 물문제를 풀어주도록 하

시였다.

당시 남녘백발에서 농사를 지은 최병윤은 후날 《장군님께서는 나라 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해 4월 29일에 우리 남녘땅농민들을 위하여 방대한 공사비와 수백여의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자재와 2만여공수의 로력을 들여 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던것입니다. ...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여, 말로 진정된 우리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오직 그이의 품속에서만 남북 조선의 겨레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북남사이의 혈육의 정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와 남조선통치세력에 의해 그후 남녘농민들에게 있어서 생명수나 같은 물줄기가 끊겼을 때에도 수령님께서서는 남녘백발농민들을 생각하시어 관개수를 다시 잇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모소 소집하시고 구암저수지와 레의저수지의 관개수수를 남조선 연백지방에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남녘농민들에 대한 어머니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은정이 깃든 결정서의 구절구절이 전파를 타고 전해졌을 때 온 남녘땅은 세찬 감격으로 파도쳤다.

그해 농사철에 또다시 남녘백발

에는 관개수가 흘렀고 농민들은 물장구를 치는 어린애마냥 앞을 다루어 물속에 뛰어들며 《물이요, 물,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물이 왔소!》하고 합성을 터뜨렸고 두팔을 높이 들어 흔들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기도 불렀다. 구름처럼 모여온 군중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소. 김일성장군이 아니면 우리 어찌 살겠소! 장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북에여 말했다. 벽차오르는 기쁨을 누를길 없어 수령님께 감사의 편지도 삼가 올렸다.

38° 선을 넘어 남녘동포들에게 가닿은 어머니사랑은 이뿐이 아니었다.

어머니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해방 직후 일제가 쓰던 창고와 병영, 정거장들에 쌓여있던 의복, 천, 모로 등 전리품들은 하나도 소모되거나 류실됨이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있었다.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어렵다고 하시면서 많은 량의 전리품을 그들에게 보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들켜주시였다.

나라가 갖 해방되어 북반부인민들에게도 천 한m, 신 한켠레가 귀한 어려운 때였지만 남녘동포들부터 생각하신 수령님이시였다.

북반부에서 새 조국건설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자주와 민족의 기상이

침차게 나래칠수록 외세의 지배에서 몸부림치는 남녘겨레들을 더욱더 생각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전력사정은 북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전기가 없어 남조선인민들이 불도 보지 못하고 일마 되지 않는 공짜마저 문을 닫게 된다는것을 아시고 전기를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배움의 길이 막히고 과학연구와 창작의 길을 잃어 모태기는 남조선의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처지를 녀려하시어 그들의 소망대로 북에서 공부도 하고 과학탐구도 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강도는 돌로 갈라졌어도 언제나 하나의 민족만을 생각하셨기에 현지 지도의 깊은 밤 정적을 깨는 소쩍새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때로는 떠도는 비구름을 보시면서도 남녘동포들생각에 잠 못 이루시던 수령님이시였다.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뜨거웠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그이의 새 민주조선건설로선과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던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분열위험이 날로 짙어간 그무렵 남녘동포들에게 기울이신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애는 세월과 더불어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 김일성화에 특별전시상, 김정일화에 특별재배상 수여

### 2011시안세계원에 박람회 국제분재식물전시회에서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2011시안세계원에박람회 국제분재식물전시회 특별상들이 수여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나라와 네델란드, 도이칠란드, 일본 등 여러 나라와 중국 각지의 수많은 단위에 출품한 130여종에 수천 상의 우수한 분재식물들이 전시되었다.

시상식이 3일 중국 시안에서 진행되었다.

2011시안세계원에박람회 국제식물경쟁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시안시화초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박람회조직위원회 성원들과 각계 인사들,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들이 시상식에 참가하였다.

시상식에서는 김일성화에 특별전시상, 김정일화에 특별재배상을 수여함에 대한 결정이 랑동되고

상장들이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대표단 단장에게 전달되었다.

국제식물경쟁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보편불수록 아름답고 황홀하다.

지난 4월 국제꽃경쟁에서 최고상을 받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국제분재식물전시회에서 또다시 특별전시상과 특별재배상을 수여받는데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

박람회기간에 진행될 여러 국제식물전시회에서도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을 모신 꽃들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꽃은 보지 못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로 하여 국제경쟁관은 수많은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있으며 이번 전시회가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것이다.

2011시안세계원에박람회 조직위원회 국제식물경쟁 담당 부처장은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의 명화들이 전시된 국제분재식물전시회장은 그야말로 참관자들로 초만원에 이루고있다.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매혹되어 오래동안 조선전시대에서 발견을 못지 못하고있다.

그들 대부분은 여기 국제경쟁관에 조선의 명화들을 전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국제경쟁관이 참관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된것은 이곳에 국제꽃경쟁에서 최고상을 받은 조선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전시되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최석현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반일 독립투쟁의 활무대로 가는 지름길로 여기시고 독립군의 골간들을 양성할 목적밑에 세워진 화청(화성)의 속에서 공부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점차 학교의 교육내용에서 시대적락후성을 깨달으셨고 새로운 방법으로 조국해방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시였다. 총 몇 자루를 가지고 소규모의 무장인원으로 압록강을 넘나들며 일제군경이나 몇몇 처가끼고 군사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없는 것이였다.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케케묵은 사상으로서 사조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했듯이 예를 쓰는 학교당국의 처사에 환멸을 느끼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뜻을 같이 하고 생사를 함께 할수 있다고 보는 대상들과 새로운 진로를 놓고 활발한 논쟁을 벌리시였다. 나라를 해방하고 근로대중이 잘사는 세상을 세우자면 대안을 늘이고 조직

을 내오며 대중을 그 두리에 묶어세워 그들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1926년 10월 명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구범들에 대한 토의를 거친 후 조직을 꾸리셨다.

그때일을 더듬으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연락도 없는 수수한 운동방에서 모임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방에 차넘치던 활기와 열정만은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모임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조직을 라도계주주의동맹으로, 락정으로는 《E. C》로 할것을 제의하셨고 그 제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E. C》는 문자 그대로 계주주의를 라도하자는 조직이었고 당면과업과 함께 최종목적도 내세웠으며 활동방향을 밝혔다.

그후 김혁, 차광수, 최창걸, 리제우를 비롯하여 《E. C》의 산아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반제자주의 길에서 언제나 선도자적 역할을 높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투쟁의 양장에서 싸우다 고결하게 생애를 마쳤다고 절절히 추억하시면서 《E. C》가 조직된 때

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길을 떴게 되었다고 회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생의 흔적을 남긴 애국자들

### 광명을 그리며

190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한 허정숙은 민족적정신과 반일의식이 강한 아버지 허헌의 영향을 받아 새 사조에 민감했고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그의 마음은 애국열로 불렀으나 제각기 주의주장과 리념을 앞세우는 형형색색의 교묘한 민족주의세력들의 분파싸움의 틈새에서 옳은 길을 찾으려 애를 썼다.

그는 국제법률가의 회의차로 세계여행을 떠나는 부친을 따라 이국에 간 기회에 해외독립운동가들과도 인연을 맺고 나라의 운명문제를 론하고 일가견도 세워보았으나 그들 역시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나라의 운명을 도탄에 빠뜨린 민족사의 교훈만을 되풀이하고있었다.

### 공화국의 첫

1945년 12월 초 어느 날이었다. 그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몸소 허정숙을 만나시였다. 오매불망 흠모해마지 않던 장군님을 뵈옵게 된 허정숙은 이를 말할수 없는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허정숙의 과거지사를 일일이 헤아리신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항일유격대에서 싸우기 위해 서울을 떠나 중국 동북

가운데 너절들도 적지 않으며 그들속에는 허정숙도 있었다.

### 영생의 꽃

일찌기 그 누구는 인간은 시간이 없고 꽃도 한때뿐이라고 했다.

《허리》를 뒤집었다.

그는 한 창 나이 때는 수령님의 덕택에 생을 빛내었다. 로년기에 접어들어는 김일성장군님의 민

###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삶

### 인민의 사랑받는 녀걸로

가운데 너절들도 적지 않으며 그들속에는 허정숙도 있었다.

광주학생사건때는 아버지와 함께 투쟁대오의 양장에 나서기도 했으나 폭압에 팽분한 일제의 검거선봉에 걸려 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허정숙은 이

1933년 감옥에서 출옥했을 때 허정숙은 온 천지를 진감하는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투쟁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그는 장군님을 찾아 1936년 11월 어린 자식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게 되었는데 중국의 동만(동만)과 난만(남만) 등지를 헤매던 중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관내로 다시 들어간것도 다 알고있었다고 하시면서 연락한 녀성의 몸으로 10년세월이나 총을 잡고 미국에서 항일을 한것은 정말 장한 일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어머니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총속에 허정숙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국장, 남북련석회의 조직준비위원

회 서기장, 공화국의 초대 문화선선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공화국의 첫 녀성상, 이것은 그가 지난 최상의 인간적 존엄, 행복의 특전이었다.

신상에 이같이 생길세라 제때에 치료도 하도록 손수 대책을 세워주신 장군님이시였다.

허정숙이 나이 많고 병이 심해져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그가 비록 직무부 능했지만 혁명선배로 존경해야 하고 여전히 종전대우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살펴주신다고 그가 83살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고인의 명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환화도 보내신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 부재예송영화 《민족과 운명》이 창작될 때에는 허정숙을 원형으로 한 연속편을 만들도록 하고도 작품에서 건너달은 모습을 잘 형성하도록 깊은 관심을 들리시였다. 그 은정속에 영화의 기품진 명화면마다에 그의 성격과 생활이 진하게 반영되게 되었다. 오늘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의 형상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안고있다.

위대한 수령, 령도자의 품에서 애국의 한길을 걸으며 삶을 빛내인 허정숙은 오늘도 사람들의 추억속에 영생하고있다.

본사기자

### 비교섬에서

라선지역에는 독특한 명승지들이 많다. 특히 바다가경치는 천하절승 금강산의 해금강에 못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와 찾아오는 관광객들마다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한다.

라선시에서는 이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관광업에 중계투력, 가공무역과 함께 경제무역시대개발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 적극 추진해오고있다.

우리는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끝난 다음날 독특한 바다경치로 소문난 비교섬을 찾았다. 라선시내에서 20분 가량 차를 타고 산길길을 따라 달리니 확 트인 바다가 시야에 안겨왔다. 우리는 야산등덕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바다가경치를 부감하였다. 푸르른 바다, 하얀 백사장, 하늘을 날오는 갈매기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멀리로 수산물가공기지로 유명한 라선대흥무역회사가 바라보였다.

우리는 산중턱에 특색있게 건설된 민속리관을 지나 백사장에 내려섰다. 멋지게 건설된 해수욕장은 수영을 하

# 전망이 좋은 라선경제무역역시대 (3)

거나 모래불속에 몸을 잠그고 일광욕을 하는 관광객들로 차고넘쳤다.

휴양의 한때를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섬에 올라선 우리는 기슭을 따라 걸었다. 시원하고 비릿한 바다물냄새를 한껏 맡으니 폐부안이 금방 청신하게 정화되고 머리가 거뜨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였다. 물론 어찌나 맑은지 바다쪽으로 수십m 깊은 곳까지도 환히 들여다보이는것 같았다. 바다물속에 바지를 길어올리고 들어가 제와 굴을 잡으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중국 지린성에서 산다는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동북사람들에게는 세가지의 소원이 있다. 첫째로는 바다를 보는것이고 둘째로는 외국에 가보는것이며 셋째로는 비행기를 타보는것이다. 조선의 라선땅은 두가지 소원을 만족시키는것으로 하여 동북사람들의 마음

을 사로잡고있다.》

앞으로 이곳에 현대적인 비행장까지 건설된다니 그렇게 되면 구역이나 되는 중국동북사람들이 이곳을 첫째가는 해외관광지로 꼽을것이라며 그는 신명이 나서 말하였다.

우리는 비교섬에 있는 부두에 도착하였다. 부두에는 자그마한 관광배들이 정박하고 있었다. 이 배를 타고 한 40여

분동안 바다쪽으로 나가면 수많은 물개들을 볼수 있다.

국내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물개를 볼수 있는 곳은 오직 이곳뿐이라고 한다. 참으로 관광지로서는 돌도 없지는 곳이다.

라선지역에는 이외에도 소문난 해안가명승지들이 많다. 적도, 숲섬 등의 섬들과 함께 추진, 갈음단을 비롯하여 바다경치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으며 웅장지구에 근 10리에 달하는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있다. 철새들이 구름처럼 밀려와 알을 낳는다 하여 그 이름을 알섬이라고 지은 선봉의 앞섬바다새구역도 못 보면 일생 한이 될 명승지이다.

《우리는 관광에 유리한 라선땅의 자연지리적환경과 조건을 리용하여 이곳을 동북아시아의 이름난 관광명승

지로 꾸리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의 기업체들과 관광전문업체들은 이곳의 관광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황철남부위원장의 말을 들은 우리의 눈앞에는 라선국제상품전시회장에서 본 중국의 한 기업의 광고판이 떠올랐다. 이 회사는 비교섬에 대한 관광개발계획과 설계를 선보였었다.

지난 6월초에 중국의 자가용차에 의한 라선관광출발식이 진행되것은 관광업발전에서 새로운 일보로 된다. 올해안으로 라선과 원정사이의 도로개건이 끝나면 관광은 더욱 활기를 띠것이다.

지난 8월말에는 라선항을 통한 금강산관광배까지 열려 앞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관광배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것이다.

머지않아 라선지역은 력사문화유적들과 바다가해안

선, 섬, 백사장, 숲, 강, 호수 등 다양한 관광자원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관광을 개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이름난 관광경제권을 형성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몇년안에 눈앞의 현실로 펼쳐질것이라고 황철남 부위원장은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우리는 시원한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며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로 떠오를 라선경제무역역시대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박금일  
사진: " 동창현 (끝)



↑ 산중턱에 특색있게 건설된 민속리관  
← 비교섬의 전경



#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성원들이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주장하는 것이다.

민족자주의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기초이다.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자기 힘으로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은 높은 각오와 의지는 자주적응명개척의 힘인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우리 겨레가 강한 자주의식을 지니야 민족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부강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과 함께 이 땅에 펼쳐졌던 경이적인 사변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북남관계발전에서 획기적기능이 열리고 불가능도가 가능으로 전회시킬 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심장마다 새겨주었다. 분산과 대결로 얼어붙은 오늘날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의 도모해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지향시키려는 노력도, 조선반도의 곳곳에서 반미, 반전평화수호의 합성 이 터져오르는 것도 다 겨레의 가슴마다에서 새차게 타오르는 민족자주의의식의 발현이다. 강한 민족자주의의식을 지닌 민족은 주와 동요를 모르고 자기 발전의 궤도를 따라 드림없이 나아가

게 된다.

그러나 민족자주의의식을 좀먹는 사대와 외세의존에 빠지면 주체성을 고수할 수 없으며 민족적응속을 면할 수 없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대주의는 필연적으로 외세의존을 낳는다.

사대와 외세의존사상에 물젖으면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게 되며 제정신으로가 아니라 외세의 눈치를 보며 외세에 종속하게 된다.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민족사에 망국의 치욕을 가져온 봉건통치배들은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국력을 강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마다 외세를 끌어들여 기용하여가는 나라의 운명을 건져보려 하였다. 자기 민족의 힘은 하찮은 것으로 보면서 큰 나라의 덕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종당에는 망국을 불러왔다.

그로부터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은 남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할 때 애국심마저 무참히 통락당하고 뒷날이 되며 민족자주의의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력사는 아직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 때 가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이 땅의 평화도, 통일도, 번영도 이룩하여야 한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민족적자존심과 단결력이 강한 우리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정신으로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철웅

# 신념과 랑심은 그 어떤 총칼로써도 억누를 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호모심을 뜨겁게 표시한 남조선주민 황길경에게 남조선사법당국이 정역형을 들썩우는 파쇼적폭거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9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82호를 발표하였다.

보도에서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고 공화국을 찬양하며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하여 지난해 12월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황길경이 파쇼법정에서 절세위인들을 흠모하는 신념을 더욱 강렬하게 토로하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새겨진 민족의 영혼》을 목청껏 외쳐 남조선사화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뢰패당은 황길경을 다시금 기소하고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제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너니 뉘니 하면서 그가 출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역형을 들썩였고》 하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피뢰패당의 이번 탄압행위를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남북통일기운을 말살하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륜적폭거로 각인하고 이를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준엄히 규탄하였다.

보도는 지금 남조선에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더욱 뜨겁게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민심의 도도한 흐름으로 되고 있고 인터넷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하고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린 남조선주민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한사람이라고 하면서 파쇼당국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한 주인을 《보안법》에 걸어 가혹하게 처형한 것은 손바닥으로 해빛을 가리워 보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이며 신념과 랑심을 갈지하는 반인륜적범죄라고 지적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피뢰패당의 탄압소동은 무지막지한 파쇼통치로 남조선의 입을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인권의 참혹한 무덤으로 만들었던 과거 군부독재자들의 야만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동족대결과 파쇼탄압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피뢰보수패당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은 인민들이 퍼올려 쟁취하였던 초보적인 민주화마저 없었듯이 짓밟히고 자기의 생각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지대로, 파쇼의 암흑사회로 전락되었다.

피뢰들이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동경하며 찬양한 사람들도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은 그들이 야말로 대결에 환장한 가장 추악한 반통일적 집단인, 인간의 리성을 끄고 리 상심한 반인륜패당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피뢰패당의 파쇼적폭거는 대내외정책의 총파산과 민심의 배격으로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 파멸에 직면한 이들의 단말마적발악이 지나지 않는다.

민족의 태양을 따르려는 남녘인민들의 신념과 랑심은 그 어떤 총칼로써도 억누를 수 없다.

남조선집권보수패당은 시대흐름과 민심에 도전하여 말살할수록 온 겨레의 더 큰 규탄과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본사기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리행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재중동포들 10.4선언발표 4돐기념행사 진행

10.4선언발표 4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비엔지국협회와 산하지부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연비엔지국청년위원회가 4일 중국 지린성 연지시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과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10.4선언이 채택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특기할 사변이었다고 격찬하였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하여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넓은 길을 밝혀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그들은

인명하였다.

그들은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온 겨레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정권》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대결정책을 일삼으며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고 하면서 현실은 남조선당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재중동포들이 북남공동선언들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대결정책을 철저히 짓부셔 민족자주의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친북, 친남해야 평화통일, 민족번영 가능》

지난 9월 30일 남조선의 서울 백범기념관에서는 10.4선언발표 4돐을 맞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6.15, 10.4국민연대 대표들의 참가하여 《6.15, 10.4 평화통일변명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결의대회에서 발언한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정일룡의 토론말대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미, 친일이 뼈속까지 박혔다는 리명박 《대통령》, 괴연정신인가.

《한국》사회는 친미, 친일의 사고, 행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관대하다. 친미, 친일의 사고와 그 행위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정도이다. 해방후 수십년동안 친미, 친일세력은 《한국》사회를 독차지해 온 결과라고 하겠다. 《대통령》의 뼈속깊이까지 그런 생각이 뿌리박혀있다면 큰일이 아닐수 없다.

친미, 친일세력은 겉으로

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척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정부》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리익, 자기네들의 리익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

일만 열면 《잃어버린 10년》타령을 하는 것도 기록권을 잃어버린 10년이 그토록 아깝다는 것이 다른 고상한 뜻이 담겨있는 것 결코 아니다. 이 사회의 수구세력은 반북세력과 일관성 쌍생아이다. 반북세력이 곧 수구세력이며 수구세력이 곧 반북세력인 정도도 그 근원이 동일하다. 친미와 친일을 모래로 태어난 것이 같고 친미와 친일을 모래로 태어난 것이 같고 친미와 친일을 모래로 태어난 것이 같고 친미와 친일을 모래로 태어난 것이 같다.

반북수구세력이라는 말에서는 동포를 반대하고 심지어 적으로 여기며 기록권, 즉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을 고수하려는 비루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낫잡두꺼운 이를로서도 자신들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부당스럽게 짝이 없다. 그래서 잔뼈부러 만들어낸게 보수우익이다. 그러나 보수우익은 반북수구와 다르다. 민족을 중시하는 보수가 반북을 할 수는 없으며 한사코 기록권을

지키려는 수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우파와 동일시할 수 없다.

평화통일은 친북, 친남으로만 가능... 반북수구세력 종말 앞당겨야

평화통일은 반북, 반남이 아니라 친북, 친남으로만 가능하다. 친과 북, 북과 남이 서로 친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친북, 친남을 하자는 것이며, 이미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그 달콤한 맛을 본 적이 있다.

리명박 《정권》 들어 반북적대정책이 기승을 부리고있으나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찰랑찰랑대는 한낱 파도에 불과하다.

반북수구세력은 인륜의 측면에서나, 또 개인도덕측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반북수구세력은 존재해서는 안될 범죄집단이다. 해벌에 눈독을 가만둬도 저질과 사적질 운영이 가진 사람들과 리익을 가진 사람들이 한사코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반북수구세력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 그것이 친북진보세력의 의무이다.

본사기자

## 공지에 빠진 자들의 단말마적발악

머칠전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국회시정연설》이라는 데서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은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이보다 앞서 서울에서 진행한 어느 한 토론회에서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도 《북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필요한 선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제를 논 소리를 하였는가 하면 악질대결분자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는 《북이 국제법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군사적대발을 할 수도 있다.》고, 《군사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이 아닐수 없다.

집권하자부터 《비핵, 개방, 3000》이니, 《기타리는 전략》이니를 운운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정책을 메달려온 남조선보수당국의 시찰오적인 《대북정책》은 지금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로 악화시킨 주범인 반통일분자 현인택이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한나라당》에서 조차 버림을 받고 통일부 장관자리에서 끝내 떨어지자갔다.

또 여야를 막론한 남조선의 정치권에서 현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이 3억US\$의 투자를 무는 셈》이니 뉘니 하면서 자화자찬하던 이른바 《5.24조치》는 까꾸로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종사하던 수백개에 달하는 남조선기업들을 쓰러뜨리고 천문학적액수의 재정피해를 몰아

판에서 어묵을 먹으며 서민들의 아픔을 노래한 사람이 어떻게 퇴임후 자기 살 궁리만 먼저 할 수 있는가.

가난한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집값은 사람들이 49% 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하철, 서울역마다, 빌딩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불쌍한 로숙자들 수만 명이 한지생활하는 것을 모른척 하면서 리명박 《대통령》은 서민복지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과연 그들의 이름, 그들의 고통을 알고

것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유무사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곳이 남부이다. 특히 북은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 자주, 자립경제를 강화해 추진하여 최근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발표하고있다.

최근 북을 방문한 사람들이 북이 나날이 발전하고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있는 상황이다. 북은 특히 최근엔 중국, 로씨야, 브라질, 인디아 등 《브릭스》라는 명도, 자원, 인구대국인 신종산실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주마, 이란, 베네수엘라, 만마, 라오스 등 지정학적인 요충지인면서 자원이 많고 반미의 립장이 확고한 나라들과의 동맹관계도 더욱 강화해가고있다. 북과

## 대결과 분열을 추구하는 《흡수통일》야망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이 땅에서 하루빨리 분열의 비극을 가실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겨레의 이러한 소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원칙있는 대북정책기조의 유지》니 뉘니 하면서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그들이 위만 벌리면 버릇처럼 위대한 《대북정책기조》란 집권초기부터 집요하게 추구해온 《비핵, 개방, 3000》을 끝자로 하는 위험한 반통일대결정책인 것이다.

비록 거기에 《상생, 공영》의 보자기들을 씌우고 아무리 분철을 해대도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이라는 야망은 결코 숨길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꿈꾸는 《흡수통일》야망은 대결야망, 분열야망이다.

우리 겨레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로서 이것은 오직 령방계통일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외세가 강요한 분열로 하여 장장 수십년세월 갈라져 살아오는 동안 북과 남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

로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겨났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한다면 대결과 전쟁밖에 불러올것일 없다. 하기에 온 겨레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인 령방계통일방식을 한결같이 지지찬동하고있다.

온 겨레의 요구를 외면하고 저들의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흡수통일》야망은 분열의 궤를 더욱 깊게 하고 대결만을 심화시키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야망이다. 이것이 북남관계에 끼친 해독적후과는 참으로 엄중하다. 바로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대결정책으로 인해 지난 6.15이후 발생한 지난 북남관계가 파국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지난 해에는 동족사이에서 불화가 오가는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펴하는 《흡수통일》야망은 언제 가도 이루어질수 없는 허황한 개꿈에 불과하다.

친남파인민이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이미 온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선군으로 백배해진 군사적위력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공화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밑에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날날마다 새로운 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은 2012년 강성대승리의 날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라는 것은 총체적국정파란으로 말해가는 《망치》요, 경제라는 것은 미국에서 제재기만 한번 해도 몸살을 앓는 예속경제이다. 외세에 의해 민족의 존엄이 유린당해도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오늘날 남조선현실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제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망상만 하고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흡수통일》야망은 이미 력사의 무덤속에 들어간 리승만연도의 《북진통일》, 유신파소속세력의 《승공통일》야망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민족의 존엄인 심판을 받은 명령들의 뒤를 따라가는 길밖에 차례지지 않을것이다.

김동철

인간이기를 그만둔 동물적 탐욕자들, 돈에 중독된 세계 금융의 핵이라고 불리는 미국 뉴욕의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로 시작된 투쟁의 불길은 어느덧 미국의 전역 주요도시뿐 아니라 전세계 60여개 각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월의 강풍이 청와대를 점령하라!

남조선의 경제는 미국의 식민주의적탈경제체제에 빚더미에 허우적거리고있다. 현재 국민들 개인부채규모는 상당하게 힘든 구조로 가고있다. 이미 IMF 등의 국제적금융지원이 없었다면 회생 불가능할 수준까지 갔다. 즉 내부적으로 해결가능한 부채규모를 넘어서서 단계적으로 외부차입 즉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빚으로 금융권이나 가계 부문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 《살집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제정이 부동산에 모두 얽매어있다.

다음 《정권》에 임했던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것은 곧 당국의 부동산정책실패와 연결되어 시장이 야비규준으로 만들수 있는 부서는 제왕의 최근에 틀림이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긴급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다.

현재 수출로 대기업부분이 살아있고 국제로 연명하는 《정부》만 움직이는 기형적인 경제로 겨우 지탱을 하고있다. 만약 세계경제불황확정이 확실되면 대외수출규모마저 하락국면을 맞을 양상이다.

10월의 강풍이 청와대를 점령하라!

남조선의 경제는 미국의 식민주의적탈경제체제에 빚더미에 허우적거리고있다. 현재 국민들 개인부채규모는 상당하게 힘든 구조로 가고있다. 이미 IMF 등의 국제적금융지원이 없었다면 회생 불가능할 수준까지 갔다. 즉 내부적으로 해결가능한 부채규모를 넘어서서 단계적으로 외부차입 즉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빚으로 금융권이나 가계 부문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 《살집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제정이 부동산에 모두 얽매어있다.

다음 《정권》에 임했던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것은 곧 당국의 부동산정책실패와 연결되어 시장이 야비규준으로 만들수 있는 부서는 제왕의 최근에 틀림이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긴급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 10월의 강풍이 청와대를 점령하라!

《정권》 말기라고 해도 이렇게 부패한것 처음》이라면서 그는 《지금 이 나라에 엄청난 부정, 부패스나미가 밀려오고있다. 사회전체가 부패에 오염되고있다. 지금 국민들은 국도로 분개하고있다.》면서 《리 《대통령》은 력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공직자비리가 최근 4년사 이 5배가 늘었다.》고 하면서 리 《대통령》을 향해 《정신차려라!》라고 경고했다.

그렇다. 지금 리 《대통령》을 정점으로 서있는 청와대의 경제담당자들, 모든 부처, 공기업들이 하루일과 중 사과박스에 담긴 물건을 받으려, 돈봉투 걸으러 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있고, 내내 돈이 돌고있고, 언론에도 리명박 《대통령》이 계속 끊이지 않고있으니 그 아래 직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너나 나나 다 썩었고 한탕 하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정부》, 《여당》부터 시작해 검찰, 판공서모두

가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썩어 부패해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리 《대통령》은 퇴임후 2605㎡(788평)규모의 새 사저를 신축해 거주하기로 했다. 지금 국민들은 국도로 분개하고있다. 《리 《대통령》은 력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공직자비리가 최근 4년사 이 5배가 늘었다.》고 하면서 리 《대통령》을 향해 《정신차려라!》라고 경고했다.

그렇다. 지금 리 《대통령》을 정점으로 서있는 청와대의 경제담당자들, 모든 부처, 공기업들이 하루일과 중 사과박스에 담긴 물건을 받으려, 돈봉투 걸으러 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있고, 내내 돈이 돌고있고, 언론에도 리명박 《대통령》이 계속 끊이지 않고있으니 그 아래 직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너나 나나 다 썩었고 한탕 하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정부》, 《여당》부터 시작해 검찰, 판공서모두

가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썩어 부패해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리 《대통령》은 퇴임후 2605㎡(788평)규모의 새 사저를 신축해 거주하기로 했다. 지금 국민들은 국도로 분개하고있다. 《리 《대통령》은 력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공직자비리가 최근 4년사 이 5배가 늘었다.》고 하면서 리 《대통령》을 향해 《정신차려라!》라고 경고했다.

그렇다. 지금 리 《대통령》을 정점으로 서있는 청와대의 경제담당자들, 모든 부처, 공기업들이 하루일과 중 사과박스에 담긴 물건을 받으려, 돈봉투 걸으러 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있고, 내내 돈이 돌고있고, 언론에도 리명박 《대통령》이 계속 끊이지 않고있으니 그 아래 직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너나 나나 다 썩었고 한탕 하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정부》, 《여당》부터 시작해 검찰, 판공서모두







# 고구려 시기의 첨성대 러 유적 발굴

평양시 대성산일대에 건설되고있는 평양민속공원건설장에서 고구려시기 첨성대로 불수 있는 건축유적이 새로 발굴되었다. 얼마전 김일성종합대학창립 65돐을 맞으며 진행된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발굴고증자료가 발표되어 학계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는 유적발굴에 직접 참가하였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유적이 언제 어떻게 발굴되었는가.

리영식: 유적이 발굴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이다. 평양시 대성산일대의 안학궁터에 평양민속공원을

세우기 위한 굴착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오랜 집터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 보았다. 이곳에서는 고분들이 적지 않게 발굴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나타나 돌들이 고구려돌칸흙무덤의 잔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발굴과정에 벽화무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고고학계의 학자들과 건축학자들, 천문학자들과의 고심어린 합동연구끝에 이것이 고구려시기의 첨성대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굴고증하게 되었다.

기자: 유적의 구조와 고

구려시기의 첨성대로 불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 해달라.

남일홍: 유적은 크게 4각형의 중심시설과 그 바깥을 둘러싼 7각형의 보조시설로 이루어져있다.

유적의 4각기초는 띠모양으로 연결되어있다. 4각기초는 맨 밑에 주먹만 한 크기의 강자갈, 막돌들을 일정한 높이로 깔고 그우에 숯과 회를 엮바꾸어가며 쌓았으며 그우에 회와 흙을 섞어 쌓아올려 단단하게 다졌다. 그 깊이는 1.3m로서 지금까지 발굴된 중세건축유적들 가운데서 기초가 제일 깊다. 4각시설의 제형이며 중심부분은 습기를 방지하고 건축물 안의 온도를 조

절할수 있도록 숯과 회를 엮바꾸어 쌓았다. 건축학적으로 이 기초시설을 계산한데 의하면 약 1천t의 무게를 받을수 있다고 한다. 건축구조물의 이러한 기초성방법은 다른 유적들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것으로서 이 기초우에 세워진 건축물



이 특정한 구조를 가지었음을 시사하여준다.



고구려첨성대(←)와 기와유물들(↑)



이 특정한 구조를 가지었음을 시사하여준다.

4각형의 중심시설주위에 7각형의 보조시설이 있다. 7각형보조시설은 사암, 현무암, 화강암들을 직6면체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는데 먼저 바닥에 일정한 두께로 진흙을 다져 깔고 그우에 돌들을 1~3단 올려쌓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유적에 대한 고고학발굴자료들에 토대하여 그 상부구조를 상상해보면 이곳에 7각형의 기단경이 20m이상인 4각형의 보호외곽과 그 중심부분에 속이 빈 통모양의 석조 건축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짐작할수 있다.

결국 이번에 새로 발굴한 건축유적은 4각형의 기단과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층층이 쌓아올린 속이 빈 석조건축물이 있었던 자리로서 여기에 세워졌던 건축물은 경주첨성대와 구조상 서로 같은 첨성대였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이 유적의 지리적위치를 놓고서도 첨성대라고 볼수 있다. 유적은 고구려시기의 왕궁인 안학궁의 서쪽가까이에 위치하고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첨성대유적을 보면 경주첨성대는 신라의 궁전건물이었던 립해전터

에서 서쪽으로 700m 떨어져 있으며 개성첨성대는 고려의 왕궁 만월대의 서쪽 200m지점에 위치하고있다. 리조시기에 건설된 천문대 역시 경복궁의 기본건물들인 근정전, 교태전의 서쪽에 있는 경회루주변 즉 왕궁의 서쪽에 있다.

첨성대유적은 천년강국 고구려가 대성산일대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시기에 건설하고 리용한것이었다.

유적의 7각형보조시설을 발굴하는 과정에 돌을 축조한 웃면에서 붉은색의 노끈무늬와와조각과 청회색기와조각, 그릇살이 비교적 얇은 도기조각들이 나타났다. 발견된 붉은색, 청회색기와와 도기조각들은 대성산성과 안학궁터에서 나온 유물들과 색깔, 제질, 무늬 등이 거의 같다. 그러므로 이 유적이 대성산성, 안학궁과 같은 시대에 함께 존재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4각형중심시설의 가운데부분에서 나온 숯의 연대측정결과 5세기초의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고구려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안학궁을 건설할 때 이 첨성

**참가자**  
 남일홍: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고고학강좌 교수, 박사  
 리영식: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고고학강좌 교원, 박사  
 사 회: 본사기자

대도 왕궁건설과 함께 계획되고 동시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자료들을 근거하여볼 때 새로 발굴한 건축물은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의 대성산일대에 정하고있던 시기(5세기 전반기~6세기 말엽)에 건설하고 리용한 첨성대유적으로 확증된다.

기자: 이 유적발굴이 가지는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본다.

리영식: 지금까지는 7세기 전반기에 세워진 경주첨성대경주 첨성대가 천문상관측 유적 가운데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것으로 인정되어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신라의 첨성대보다 200여년 앞선 시기의것인 고구려의 첨성대가 발굴된것이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고구려시기의 첨성대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천년강국 고구려는 광활한 령토를 차지한 동방의 대강국이였을뿐아니라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여 인류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진문명국이었다는것이



다시금 뚜렷이 확정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세나라시기 조선민족의 전반적인 문화발전 특히 천문학발전에서도 고구려가 중심적이며 선조적인 역할을 하였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력사문헌상의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고구려시기의 첨성대터가 이번에 유서깊은 평양에서 발굴됨으로써 평양이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가 깃들여있는 력사의 도시이며 예로부터 민족문화가 찬란히 꽃피던 문화의 중심지였다는것이 다시금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금강산 신계사복원 4돐기념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합동법회》 봉행

13일 조선의 금강산 신계사에서 《금강산 신계사복원 4돐기념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합동법회》가 봉행되었다.

합동법회에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교직원들과 신계사의 승려, 신도들, 남측에서 불교조계종 승려, 신자들이 참가하였다.

합동법회에서는 불교예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공

동발원문이 봉독되었다. 연설자들은 얼마전 남조선 불교조계종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신계사복원 4돐을 맞으며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합동법회를 봉행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불신화합하여 불퇴전의 기상으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서로의 련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북남불교도들의 한결같은 의지의 발현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공동발원문에서는 남측인원들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자유롭게 참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행에 적극 떨쳐나서려는 북남불교도들의 확고한 결의가 천명되었다.

본사기자

## 라진-하산철도구간 시범열차운행행사 진행

먼저 왈레리 레페르니코브 상급부총사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관심속에 진행되는 철도 운수분야에서의 협조는 새 화물물선을 여는데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시범열차운행이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3돐과 때를 같이하는것으로 하여 더 큰 의의를 가지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주재덕부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시범열차운행은 두 나라 철도운수발전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라진-하산철도구간에서의 화물수송이 조로 두 나라뿐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유럽



본사기자

사이의 경제교류에 이바지하리라라는것을 확인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추하발원들이 있었다. 이어 시범열차는 하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날 라진-하산철도구간 시범열차운행행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한 연회가 있었다.

본사기자

## 가을철 민족음식 풍습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가을철음식들을 만들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 왔다.

가을의 대표적인 철음식은 송편이었다.

햇쭈욱을 넣어서 만든 쭈욱이 초여름의 대표적인 철음식인것처럼 햇쌀, 햇팥, 햇콩으로 만든 송편이야말로 초가을의 대표적인 철음식

이었다.

또한 가을철민족음식으로 는 찹쌀가루를 써서 닭알과 같이 둥글게 만들고 거기에 삶은 밤가루를 깔아 버무리서 문힌 반달자가 유명하였다.

평양지방에서는 찹쌀이나 찹기장, 차조가루를 익반죽하여 길쭉가루를 두고 삭힌 다음 기름에 지진 노치를 가을철별식으로 만들어먹곤 하였다.

노치는 맛이 향기롭고 달콤하면서도 오래 두고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가을철이면 국화가 만발하는 계절이라고 하여 국화술도 만들어 마시곤 하였다.

국화술은 꽃이 피었을 때 꽃과 줄기를

잘 씻고 거기에 기장을 넣어 만들었는데 1년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해 가을에 마시면 장수에 좋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민족은 두부를 얇게 썰어 꼬치로 만들어 기름에 지진 다음 닭고기국에 넣고 끓인 음식인 연포, 말린 쭈욱을 두드려 찹쌀가루에 넣고 동그란 찹쌀 만들어 놓고 버무리 다음 팔가루를 문힌 쭈욱자도 만들어 먹었다.

제철에 나는 음식재료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철음식들은 생신하며 특색이 있어 오늘날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노치

## 《경치》와 《풍치》

우리말 상식

둘 다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개별 뜻을 보면 경치는 눈에 바라보는 자연이나 지리적환경의 풍경을 말한다. 레: 경치가 좋다. 경치가 아름답다. 풍치는 격에 어울리는 멋

또는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경치를 말한다. 레: 풍치를 둔다. ※ 풍지림이라는 말은 경치를 훌륭하고 멋지게 하기 위하여 심어가꾸는 숲이라는 뜻이다. 본사기자

##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27가지 약속

의학계에서 발표한 인간의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27가지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

- ① 근심걱정과 시기질투
- ② 라태와 대노
- ③ 호색과 탐욕
- ④ 과도한 흡연과 음주

- ⑤ 영양의 단일한 섭취
- ⑥ 음식량을 절제하지 못 하는것
- ⑦ 아침식사에 대한 홀시
- ⑧ 탄 음식물
- ⑨ 끼니마다 포식
- ⑩ 지나친 비만
- ⑪ 보약의 탐욕
- ⑫ 지나친 사랑가루와 소금의 섭취
- ⑬ 정서의 불안정
- ⑭ 환경오염
- ⑮ 지나친 안일
- ⑯ 길을 생각은 않고 늘 차를 타는것

- ⑰ 일하기 싫어하는것
- ⑱ 머리를 쓰지 싫어하는것
- ⑲ 병을 숨기고 병보이기 싫어하는것
- ⑳ 운동을 잘하지 않는것
- ㉑ 더러운 옷차림
- ㉒ 애완동물에 대한 기호
- ㉓ 열이나 빛을 지나치게 받는것
- ㉔ 과로
- ㉕ 놀음에 미쳐 밤을 새는것
- ㉖ TV미끼왕이
- ㉗ 적막과 고독

## 단편소설

물건의 생김새에 따라 불품이 달라지듯이 음식감도 써는 모양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썰 때에는 힘살살 많이 써주어야 맛이 좋다. 토끼고기는 갈아서 생을 한다. 그 때 고기를 빨리 나와 더 구수한 맛이 난다.

삶은것은 될수록 알약알약하게 썰어야 고기맛이 더 난다. 삶은것보다 가늘게 또는 굵직굵직하게 썰어야 신선한 맛이 난다.

본사기자

에호박으로 지지개를 끓여 지나 진을 지질 때에는 좀 두툼하게 썰어야 한다. 오이, 호박을 너무 알약알약 썰면 물기와 함께 당분이 많이 빠져나오므로 고고에나 무 절어서 생을 한다. 신선한 맛이 없다.

무우는 될수록 가늘게 썰어 국, 생채를 만들어야 만문하게 무르고 무우에 들어 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많이 나와 다른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

본사기자

예향은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졌다.

《전 이 아이의 얼굴에서 천다섯해전의 작곡가선생의 모습을 련상해보았습니다.》

예향은 전기에 닿은듯 흠뻑 눈물하며 저도모르게 사진을 집어 들었다. 반듯하면서도 약간 도두룩한 이마, 쌍가풀진 오목눈, 동그란 볼과 상큼한 턱, 띄듯한 고갈과 선이 뚜렷한 입술...

그가 어찌 어린시절의 자기 모습을 몰라볼수 있으랴. 그는 화석처럼 굳어진채 점도록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림에서 본 다리밧의 움막집이 떠오르면서 그처럼 가난한 살림에도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추억해준 부모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지성, 기대와 녀원이 뜨겁게 느껴졌다.

《바로 그 사진을 찍기 하루전날 아버지는 정용에 끌려갔습니다. 하루 두끼 물

죽을 먹으면서 한문두문 모은 돈으로 옷과 쌀, 학용품을 사다주며 이다음에 학자가 되라고 축복해주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화가의 이야기가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

남편이 끌려간 저녁 어머니 조순정은 우는 아이를 업은채 눈물로 절구질을 하고 맥을 빻았다.

이튿날 돌사진을 찍어주고 꼬깃꼬깃 싸두었던 돈을 마저 털어내고나니 당장 술에 넣을것이 없었다.

돈을 벌지 않고는 하루도 살수 없었으나 일을 나가자니 아이를 맡길데가 없었다. 할수 없이 아이를 업은채 공장으로 나갔다.

《잔등에 혹이 달린 녀자는 안래!》

감독은 단마디로 거절했다.

조순정은 물러설래야 물러설데가 없었다.

《아이를 업고서도 처녀들과 똑같이 일할수 있어요. 받아주세요.》

감독은 순정이 처녀처럼 4년 남짓한 동안 얼마나 이악하고 결색제 일하는가를 보아온터이고 또 그만한 기능공도 쉽지 않은지라 다소 타협조로 나갔다.

《일자리나 업고싶거든 혹은 매버리고 오란 말이 다.》

《저... 말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는 정용에 가구...》

《그러기에 애새끼를 남이나 주란 말이야. 그러잖으면 별수 있나?》

순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남을 주다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을 거듭했다.

《감독님, 사정 좀 봐주세요. 이 애마저 없으면 전 누굴 믿고...》

《글쎄 애새끼를 업고는 일할수 없잖아?》

《휴게실에 눕혀놓으면... 안되나?》

《빠가야로! 그럼 일은 안하고 새끼나 끼고있겠다는건가? 잔말 말고 나갔!》

감독은 체적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순정은 뿌리내린듯 움직일 녀를 않고 서있었다.

《자자, 빨리 나가지 못하겠는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애새끼를 저 쪼는 가마속에 누에고치와 함께 처넣을 부름뜨고 시누런 버덩이로 아래입술을 감춰문 그기상에 질겅했던지 아이가 《오양》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순정은 그만 쫓기듯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빈혈이 와서 비칠거리는 걸음을 겨우 옮겨졌다.

걸 가까이에 서있는 강기습의 버드나무에게 이르자 그 줄기를 부여잡고 얼굴을 팍 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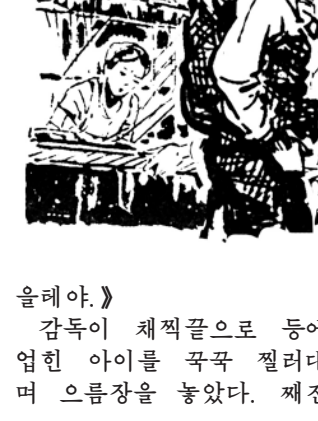
모를 구원해줄 손길은 더 없었다 말인가?

애달픈 눈길들 들어 하늘을 우러르는 그의 눈앞에 검은 연기가 느물느물 피어오르는 공장굴뚝이 바라보였다.

그 굴뚝은 잡아먹을듯이 노려보는 왜놈감독의 험악한 상판으로 바뀐다. 그것은 또 새끼가 빈둥거리는 눈빛으로 썩거리며 덜덜떨어 처녀의 정조를 유린하려던 지주놈의 흉물스런 모습으로 뒤 바뀌더니 이번엔 좋은 일자리를 준다며 소매없는 피상한 옷으로 유혹하던 술집주인의 정글같은 모습으로 다가간다. 《반반하게 생긴 계집이 그 좋은 밑천을 두고 오금을 고생시킬 필요가 있나?》 하던 그의 말...

아, 이 세상은 이렇게만 되어먹는것인가? 가는 곳마다 승냥이의 함정이요, 구렁이의 소굴이니...

그는 어디까지나 순결한 랑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피땀흘리는 로동현장을 찾아왔건만 아이를 낳은 죄 아닌 《죄》로 여기서도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가 이제 갈 곳이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어디? ...



올레야.》

(여보! 난 이제 어쩌면 좋아요? 살수도 없고 죽을수도 없구... 아...)

정녕 이 넓은 세상에 우리